

아사노 연사

- 마법의 연사로 에어가오루 타월 등 개발에 성공 <1/2>

연사 기업이 브랜드를 만들고 타월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사노 연사(淺野 撚絲)가 이제까지의 기성 개념(既成 概念)을 벗어나 오보로 타월과 제휴로 2005년부터 ‘에어가오루(Air kaol : 향기나는 공기) 타월’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인터넷(Inter-net)을 이용하는 구입자 중 64 ~ 65%가 재구입자(repeater)로 압도적인 인기가 있는데, 이러한 배경으로는 ‘일본에서만 할 수 있는 생상품 만들기’를 찾아 개발하면서 작은 연사 기업이지만 상식을 뒤엎는 발상으로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

◎ 중국산이 산지를 덮칠 때 한 때는 폐업도 생각해 봤다.

신칸센(新幹線)의 기후 하지마역(岐阜 羽島驛)으로부터 일본에서 가장 크고 물이 맑은 3개 강 중의 하나인 나가라가와(長良川)를 건너면 아사노 연사 기업이 있다. 1969년에 설립되었으며 기후현(岐阜縣)을 대표하는 연사 기업으로서 그룹 공장의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해 왔다.

신소재 개발의 중점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 센터에 무라타 기계(村田 機械)의 트위스터(twister : 撚絲機) 36M이 4대(臺), 더블러(doubler : 合絲機) 608이 2대 설치되어 있다. 그룹 공장에는 더블 트위스터 : 合撚絲機가 32대, 더블러가 18대(그 중에 QT 방식 16대), 닛캄(닛캄製 또는 닛캄式 진공 set기, 복합연사를 수증기 80 °C에서 30분간 처리) 2대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아사노 연사도 2000년부터는 중국으로부터 값싼 제품이 밀려들어오는 데에 따라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상사들이 해외로 생산을 빠르게 쉬프트(shift)하는 상황 즉 일본으로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로 생산이 옮겨지는 상황에서, 아사노 연사는 다른 회사에서 못하는 높은 기술력으로 어떻게든 수입 제품에 대항해 보려고 하였다.

그러한 중에 스트레치 붐(stretch boom)이 일어났을 때는 코어 안(core yarn)의 생산이 많

아졌다. 수주량은 월간에 200톤을 넘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붐도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중국에서 코어 얀(core yarn) 생산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본 국내에서는 생산이 줄어들면서 단가도 크게 떨어졌다. ‘한 때는 폐업을 생각하였다.’고 할 정도로 기후현 안에 400개사 이상 있던 연사 기업도 어느새 30개사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 마법의 연사를 개발하여 에어가오루가 태어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상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어쨌든 중국과 똑같이 상품을 만들어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2003년 이후로 매일같이 소재를 개발하였다. 매달 30건 이상의 시험은 보통이고 많을 때에는 70건을 넘을 때도 있었다. 시행착오 끝에 2005년에 구라레 트레이딩(Trading)과 공동 개발한 것이 실에 공기층을 만드는 연사 공법인 미라클 에어 트위스트(miracle air twist)였다. 이것은 세계에서 처음인 연사 공법으로 수용성실과 특수 합연 기술을 이용하여 무연사(無撚絲)의 부드러움과 중공사의 가벼움을 함께 갖고 있는 실이었다. 그야말로 ‘마법의 연사(魔法의 撚絲)’라고 부를 만한 실이 되었다.

중공사는 실의 심(芯)에 사용한 수용성 실을 녹여 실의 중심을 공동(空洞)으로 만든 실이다. 마법의 연사는 면사 파이버 한 올 한 올 사이에 빈 틈바구니가 생겨 폭신평신했던 감각과 큰 볼륨을 만들었다. 보통 무연사는 원래 방적사의 10 ~ 20%의 꼬임수로 되어 있어 잔털이 떨어지기 쉽게 되어 있다. 그런데 마법의 연사는 꼬임수가 원래의 방적사와 거의 같으며 그만큼 잔털이 덜 떨어지고 불룩한 느낌이 오래 지켜지는 획기적인 실이었다.

다만 “실로만 팔려고 하여도 좀처럼 팔리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었다. 실의 특징을 살리는 제품을 만들어 그 감촉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보로 타월(Oboro towel)을 만났다. 2005년 10월 도리히키 은행(取引 : 去來 銀行)에 의한 ‘기업끼리의 매칭(matching : 提携)’으로 두 회사가 만나서 중국이 모방할 수 없으면서 세계에 통용되는 타월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이제까지 볼 수 없는 새로운 타월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애히메현(愛媛縣)에 있는 이마바리(今治) 산지나 오사카부(大阪府)에 있는 센슈(泉州) 산지와 같은 타월에 관한 실력 있는 산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들 산지에서도 만들 수 없는 타월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작은 연사 기업이 타월이라는 제

품을 만들어 브랜드까지 만들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상식적인 발상이었다. 고베(神戸)의 베이비 어패럴(baby apparel) 중 ‘전통과 신용이 있는 오래된 업체(老舗)’인 패밀리어(Familia)의 조언을 받으면서 2년 동안에 시작(試作 : 試驗삼아 만든 작품)을 무려 4,000 장이 넘게 만든 후 2007년 5월에야 겨우 패밀리어가 상품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까지 볼 수 없던 타월 ‘에어가오루(향기나는 공기)’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